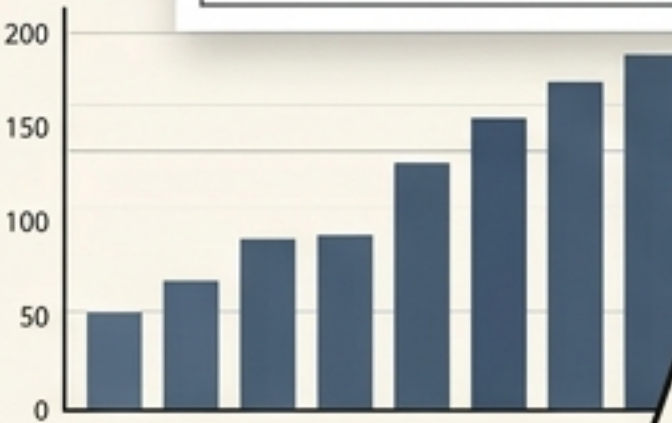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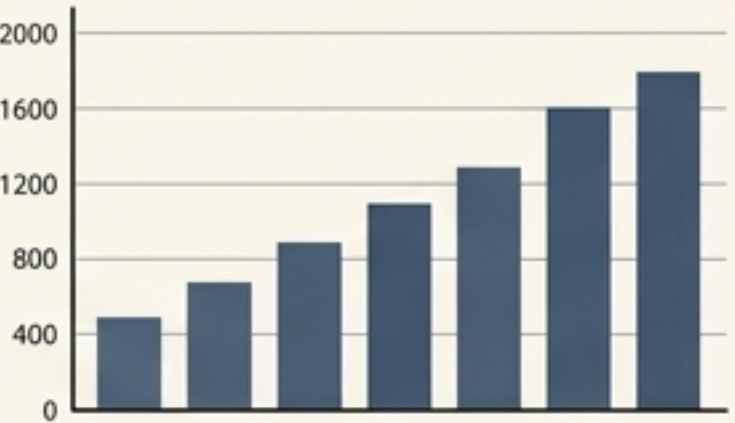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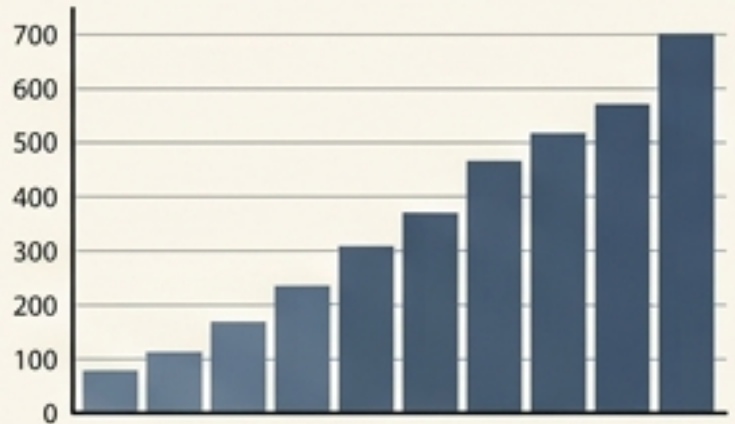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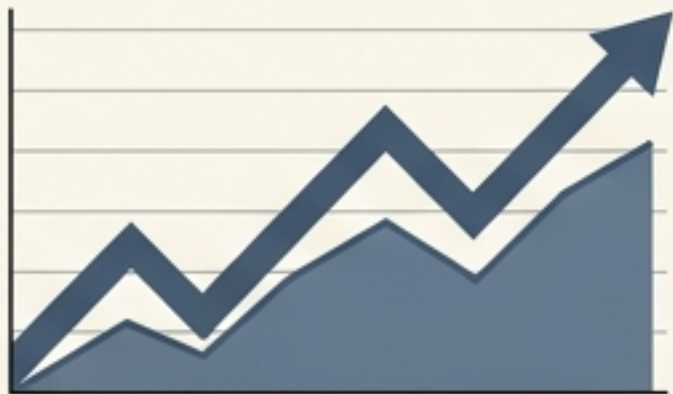


AI 질주와 매크로 불안의 공존

글로벌 금융 시황 및
포트폴리오 전략 대시보드

2026년 5월 27일 장전 브리핑



반도체·AI 주도 랠리



나스닥 26,656 (+1.19%)
/ KOSPI 8,047

마이크론 19% 급등 및 AI 수요 폭발로
韓·美 반도체 펀드 매수 모멘텀 강화.

지정학적 인플레이션 리스크



WTI 원유
\$90.93 (▲ \$2.62)

미군-이란 군사 충돌 및 공급 절벽 우려로 유가 수년간
100불 이상 고착화 경고. 위험자산 변동성 확대.

환율 하락 (원화 강세)



원/달러 1,445.00원 (▼ 5.30)
달러인덱스 159.36 (▼ 0.32)

유로 강세에 따른 달러 약세로
원화 매수/외국인 수급 유입 기회 발생.

대형 매크로 지표 대기



목/금 (5/28~29)
별 3개(★★★) 이벤트 집중

韓 금통위, 美 PCE/1분기 GDP 발표 전 관망세.
현금 및 채권 비중 재점검 필요.

한국 증시: '코스피 8,000 시대'를 지탱하는 반도체의 무게

Top 10 KOSPI Stocks by Market Cap

삼성전자 1748.0조 299,000원	현대차 (141.1조)	LG에너지솔루션 (93.5조)	
	기아 (65.2조)	삼성 바이오로지스 (66.0조)	삼성SDI (51.7조)
SK하이닉스 1462.5조 2,052,000원	현대차 (24.8조)		
	POSCO홀딩스 (35.0조)	NAVER (31.4조)	LG화학 (24.8조)

KOSPI (8,047.51 | +0.00%)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과 반도체 강세가 지수 하방 경직성 제공. 증권가 '1만 포인트 도달 가능성' 제기.

제조업(+16.16% 1W), 의료정밀(+15.91% 1W) 섹터 초강세.

KOSDAQ (1,172.52 |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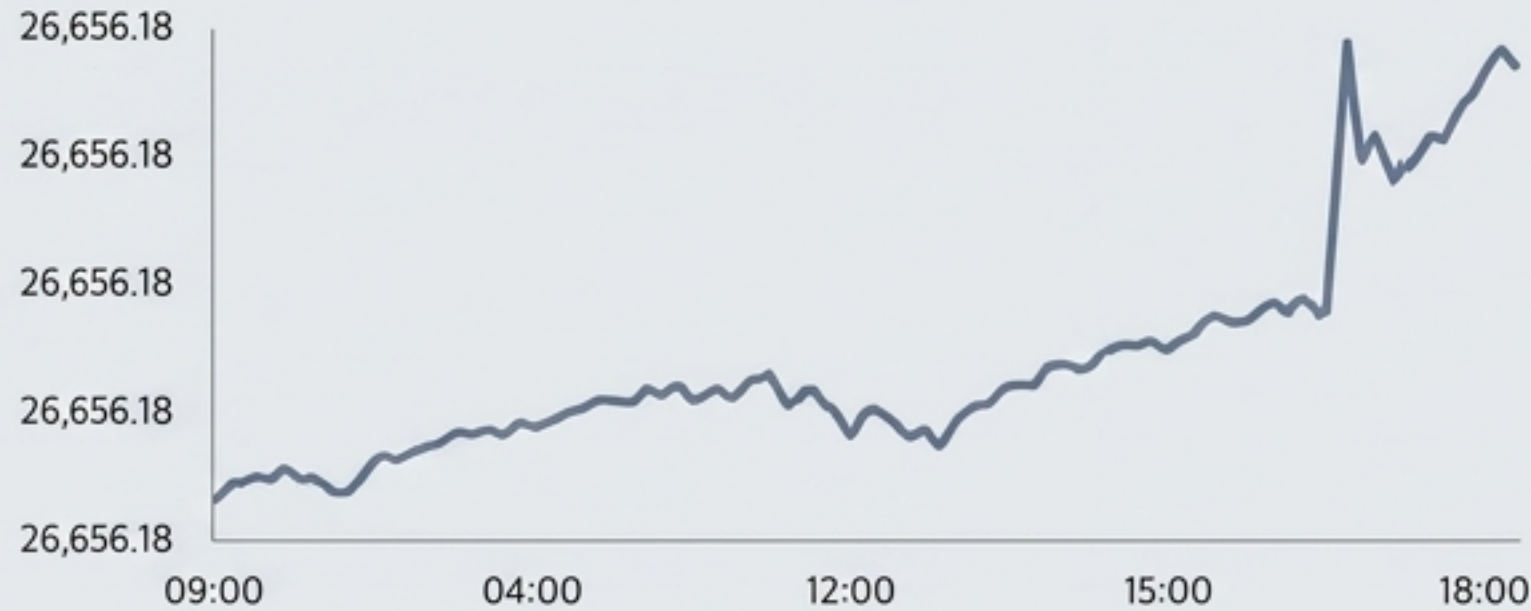
'좀비기업 물갈이' 및 '국민성장펀드 수혜' 기대감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베팅 조짐.

미국 증시: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vs S&P 500의 짙은 관망세

성장 & AI 낙관론

NASDAQ 26,656.18 (▲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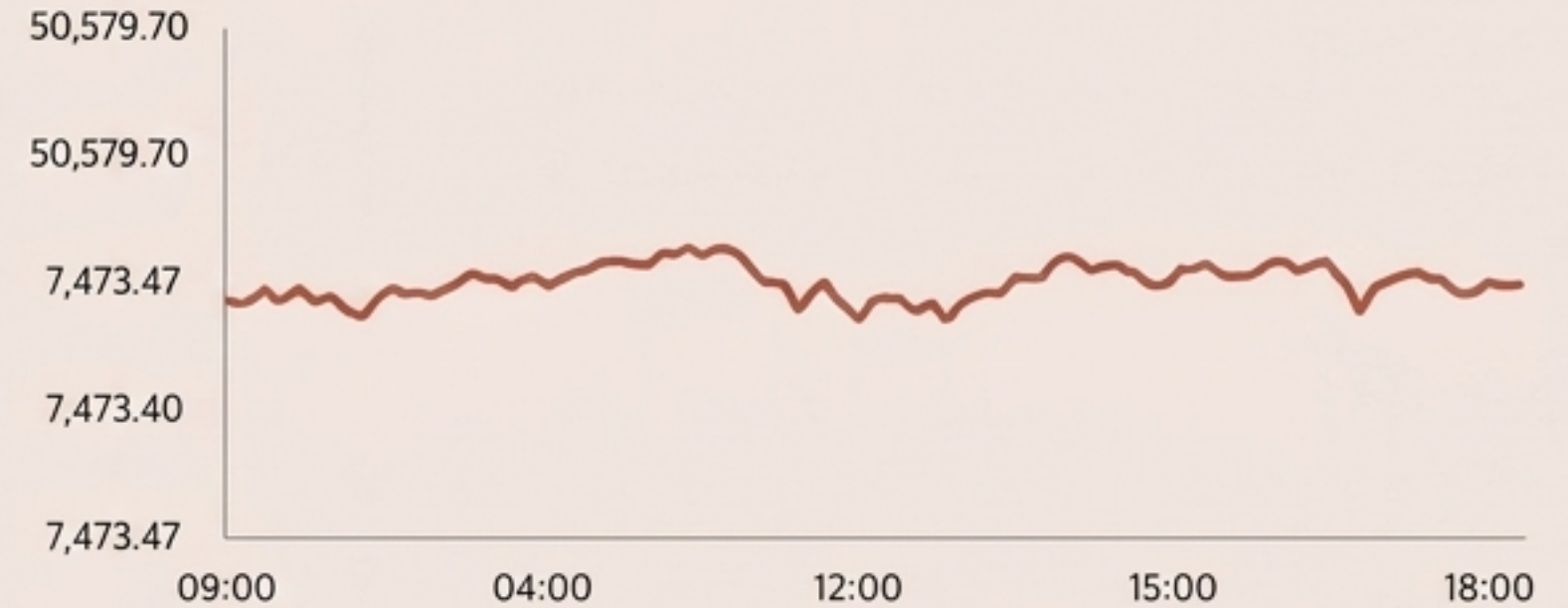
- 마이크론(Micron) 19% 폭등.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 AI 수요, 투자규모 압도. 전쟁 불안 덮은 반도체 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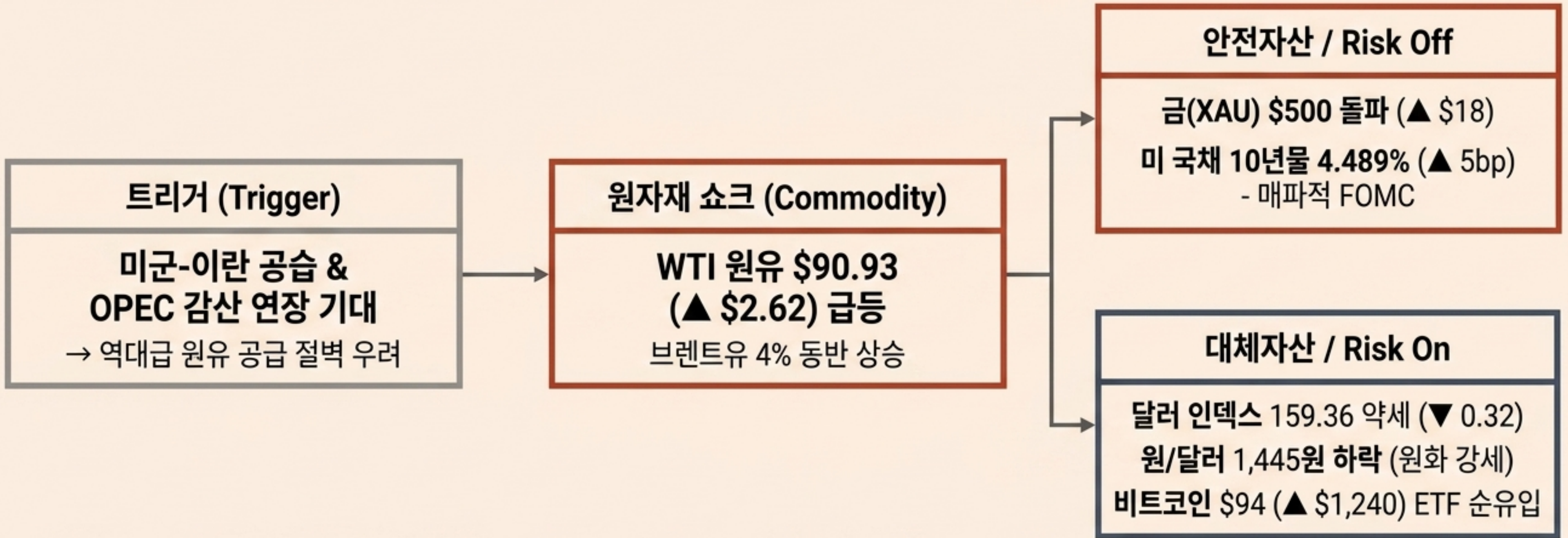
매크로 & 지정학적 불안

S&P 500 7,473.47 (— 0.00%) /
DOW 50,579.70 (— 0.00%)

- 유틸리티 1일 -1.70% 하락. 월가, 美 증시 과열 경고.
- 미국의 대이란 자위적 타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증시 혼조세 압력.



FICC 연쇄 작용: 지정학적 리스크가 촉발한 '리스크 오프'와 '리스크 온'의 혼재



핵심 진단: 주식 시장은 상승(성장)을 반영하나, FICC 시장은 유가 급등과 금리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동시에 프라이싱 중. 자산군 간 신호 불일치(Divergence) 극대화.

주간 매크로 캘린더 (5/27 ~ 6/2): 목·금요일에 집중된 변동성 뇌관



물가(PCE), 성장(GDP), 통화정책(금통위) 지표가 48시간 내 동시 발표.
 포지션 구축보다 관망 심리가 우세한 절대적 이유.

종합 결론 및 오늘의 액션 플랜 (Strategic Compass)



1. 승차 (Ride the Trend): 반도체·AI 비중 유지

나스닥 강세 및 마이크론 실적 모멘텀은 유효. 코스피 시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도 장세 편승 전략 유지.



2. 헷지 (Hedge the Risk): 원유·인플레이션 변동성 대비

WTI 90불 돌파 및 10년물 국채 금리 4.489% 상승. 이란 긴장 고조에 따라 금·비트코인 등 대체/안전 자산의 포트폴리오 헤지 기능 강화. 과열된 위험자산 포지션 일부 조정.



3. 점검 (Wait & See): 주 후반 '빅 이벤트' 전 유동성 확보

달러 약세(159.36) 및 원화 강세(1,445원) 기회를 활용. 5/28~29일 예정된 한·미 금리 결정 및 미국 GDP/PCE 발표 전 채권 및 현금 비중 재점검 요망.

AI의 구조적 성장 추세에 투자하되, 매크로 지표 확인 전까지 전술적 현금 비중을 유지하라.